

지역 매 아리

중국 유소년 문화교류연수단 부안청자박물관 도자기체험

부안군은 지난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국 사천성 청두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10여명이 청두 유소년 문화교류연수단을 꾸려 3박4일 일정으로 부안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청두 유소년 문화교류 연수단은 이 기간 동안 관내 교류협약을 체결한 부안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공연 및 상호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부안청자박물관을 방문해 한국과 중국의 도자문화의 발달과정을 습득하고 천년 전 고려도공이 돼 청자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국내 유일 청자전문박물관으로 청자역사실, 청자명품실, 수장고, 청자제작실 및 체험실, 특수영상실, 기획전시실 등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 도자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합적인 도자문화시설이다.

또 고려시대 중국과의 도자문화교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 중국 유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도자기체험에 참여한 중국 사천성 청두시 흥화초학교 교사 뤼웨이씨는 "부안이 자연경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중국에서 건넌 청자를 이렇게 멋진 삼강청자로 발전시킨 세계 최고의 도자문화가 있는지 몰랐다"며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년도자문화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갈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다동이 8가족 가족 광주야구장서 애국가 부른다

집집마다 애국가 연습 진풍경

고창군 다동이(셋째아 이상) 8가족(32명)이 오늘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경기장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 홈경기에 초청돼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부른다고 4일 고창군이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다동이 출산율 1위(전체 288명의 출생아 중 75명의 아이가 셋째 이상)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벤트 참여 가정에선 매일 저녁 댕개는 5~6명의 어린 아이들이 애국가 연습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고창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관계자는 "다동이 가정이 주는 가치와 행복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시민법인 돌레의 '통통' 심화 과정이 성황리에 끝났다.

문화 역량 강화의 디딤돌

돌레, 문화기획자양성프로그램 '통통' 성료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시민법인 돌레의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 '통통' 심화 과정이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달 17일에 시작한 '통통' 심화 과정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정읍 롯데관광개발행복마을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행복마을센터에서는 기초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심화 강의, 공연장 답사, 네트워킹 캠프가 진행됐다.

직장인과 예술인, 사업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공연기획을 주제로 부여된 두 개의 미션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 발표했다. 이어 강사의 피드백과 정리시간으로 과정은 마무리됐다.

강사로 참여한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허영훈 외래교수는 "기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의 본질과 기획자의 자질 등 기획자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에서 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 등

체계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에 인상 깊었다"며 "참가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획력이 매우 돋보였다"고 말했다.

인수영 이사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을 추가로 진행해서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전문성을 배출해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법인 돌레 홈페이지(dul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고창교육, 희망은 있는가' 참여자 모집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이 오는 16일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교육,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10차례 동안 한국교육의 현실과 지역교육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강연자로는 광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박일관 나포중학교장, 이무연 회현중학교장 등이 강연과 토크에 참여한다.

고창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초·중등 교육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서 추진 중인 대안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들을 이해하면서 현실적인 교육개혁의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는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이 오는 16일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

하며, 4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 사항은 성호도서관(560-8053)에 연락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 한다.

전국 400개관의 도서관이 문화·교육의 지속적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획·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하절기 집중 운영

"외벽에서 물이 새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해충이 들어올 땀 언제든 불러주세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주로 가정 내 차단기·배선 수리, 수도·수전 교체, 문고리·환풍기 교체 등 작지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예년보다 심한 폭염과 장마가 예상되

는 이번 여름에는, 방충망이나 외벽특새 보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간 방충망으로만 13건을 수리했다. 생활민원 처리반은 앞으로도 낮은 방충망 교체와 실리온·폼을 활용한 외벽특새 보수에 힘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기·상하수도·방충망·집수리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고창군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나 고창군 종합민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560-2382)에 접수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난 3일 고창사랑상품권을 개시했다.

고창군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고창사랑상품권 첫 개시

고창군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난 3일 고창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5%할인받은 금액은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또 환한규 무장면장은 관내 1호 가맹점인 커피숍 레드관원에서 고

창사랑상품권으로 음료를 구입해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환한규 면장은 "고창사랑상품권을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화폐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손 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부안군보건소, 식중독 주의 당부

부안군보건소는 최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의 조리과 보관, 섭취에 각별한 주의의 당부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식중독 환자 절반에 가까운 약 48%가 7~9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중독이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결한 손 씻기의 생활실천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또 육류의 경우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하며 조개·생선 등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세척한 다음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익혀 먹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주와 수세미에서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자주 삶아주고 햇볕에 말려 사용해야 하며 식기와 칼, 도마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에는 음식을 많이 조리해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기 보다는 적게 만들어 바로 먹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